

[프로야구]병호·성열 대포에 싱글빙글한 엄경엽 감독

등록 2014.07.12 17:56:37 | 수정 2016.12.28 13:03:01



【서울=뉴시스】조용석 기자 =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엄경엽(46) 감독이 박병호(28)와 이성열(31)의 사연있는 홈런포에 즐거움을 감추지 않았다.

엄 감독은 12일 목동구장에서 열리는 NC 다이노스전을 앞두고 "전날 NC전에서 모든 것이 다 좋게 됐다"며 "(박)병호도 아홉수에서 벗어났고 (이)성열이도 잘 풀릴 것 같다"고 말했다.

전날 열린 목동 NC전에서 이성열은 2-1로 앞선 6회말 3점포(시즌 7호)를 터뜨리며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, 박병호는 8회말 대타로 나와 썩기 솔로포(시즌 30호)를 작렬했다.

3년 연속 홈런왕을 노리는 박병호와 지난해 18개의 홈런아치를 쏜 이성열에게 홈런 한 개는 그렇게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.

하지만 박병호의 시즌 30호와 이성열의 시즌 7호는 사연이 많았다.

최근 지독한 타격 부진을 겪었던 박병호는 전날 340경기만에 선발 출전선수 명단에서 제외됐다. 프로야구 사상 첫 2년 연속 4번 타자 선발 출전기록도 끊겼다.

이성열은 더 심했다. 이날 경기 전 10경기 타율이 0.067에 불과했다. 지난 5월11일 LG전 이후 단 한 개의 홈런도 때려내지 못했다. 출전 기회를 잡기도 쉽지 않았다.

그러나 답답했던 넥센의 두 거포들은 한날 동시에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부진 탈출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았다.

염 감독은 "야수 중 (박)병호와 (이)성열이가 최근 제일 안 풀려서 고민 많았는데 동시에 잘됐다"고 함박웃음을 지었다.

이어 "(이)성열이는 그동안 훈련도 열심히 했는데 한 만큼 나오지 않아서 스스로도 많이 답답했을 것"이라며 "큰 것 한 방을 했으니 이제는 좀 잘 풀릴 것 같다"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.

박병호에 대해서도 "홈런이 좋았을 때의 스윙폼으로 나왔다"고 만족감을 드러냈다.

하지만 박병호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다.

염 감독은 "(박병호를)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계획대로 2~3일 정도 쉬게 하는 게 맞다고 결론을 냈다"며 "하지만 오늘도 대타로 나올 수 있다"고 설명했다.

chojuri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